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4년 3월 2일(주일) 제989호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헌금 2만 7천여 성도, 109억 작성



선교헌금 2만 7천여 성도, 109억 작성

작지만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여린 손을 잡는 순간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린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2면으로 이어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식은?
“구원 확신, 윤리문제 보수적”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2

» 4-5면



사역 - 온누리 호스피스

» 8면

마지막 가는 길
손 잡아주는 이
있다면...



온누리 호스피스
ONNURI HOSPICE

확대당회

일시: 3월 8일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교역자, 사역, 시무, 협동장로



2014 선교헌금

헌금에, 중보기도에, 재능기부까지

온누리교회, 선교하는 방법도 다양각색

26,751명의 성도가 해외선교헌금 109억 원을 작성했다. 올해는 헌금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신청도 줄을 이었다. 5천2백여(중보기도 4,074명, 재능기부 1,092명)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다. 올해 처음으로 작성한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분야에 예상치 못한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다. 어떤 식으로든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생정보통 '후원사역부'

성도들에게 생생한 선교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누리선교후원사역부'가 신설됐다.

온누리선교후원사역부는 성도와 선교사를 잇는 소식통이다.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만들어 선교사와 성도들이 소통하도록 돕는다.

소통과정은 이렇다. 온누리선교후원사역부 소속 재능기부자들이 선교지 정보와 선교사 편지를 담아 기도편지를 제작한다. 이 기도편지가 중

보기도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다. 기도편지를 받은 성도는 선교지 소식을 보고 중보한다.

지금은 선교사들의 편지를 성도들이 받기만 하지만, 앞으로는 성도들도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귀한 손길 '재능기부자'

지난 2월 25일 첫 번째 기도편지가 발송됐다. 지난 2개월 동안 재능기부자들은 기도편지 제작을 위해 헌신의 힘을 쏟았다. 관심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4천통이나

돌렸다. 재능기부에 헌신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선교열정은 같다.

온누리선교후원사역부 팀장 김순태 집사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가 재능기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인하 성도는 두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소식지 제작을 돕는다. 박계용 집사는 소식지를 통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선교사 자녀 박영민 자매는 소식지를 제작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70-4949-7882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온누리교회에는 대륙별 모임, 선교사를 위한 모임, 온누리교회 선교를 위한 모임, 미전도종족을 위한 모임 등 40여 개의 선교기도모임이 있다. 기도모임을 순차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첫 순서는 북한중보기도모임이다.

북한중보기도모임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 북한사역의 시초가 바로

북한중보기도모임이다. 청년부를 주축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장년층까지 확대되었다. 찬양과 말씀, 기도로 예배를 드린다. 북한과 중국 선교사들을 초청해 사역이야기를 듣고 기도제목도 나눈다. 매월 첫째 주에는 '북한선교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북한전문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연다. 매주 월 저녁 7시30분. 서빙고 신관 402호.

문의: 송웅주 팀장 010-8591-8236

기도제목

- 북한주민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 새터민들이 억압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 선교한국의 역사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 중국과 이슬람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Mission Talk

김정혜 선교사

“보석같이 빛나는 선교사 자녀들”

2002년 한일월드컵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을 때 나는 북인도 델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여장 남자들의 노랫소리, 불치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무거운 눈빛, 온갖 쓰레기와 먼지를 마른 걸레로 닦아내는 아이들의 무릎은 동전 한 닢을 외치고 있었다. 뜨거운 델리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 한명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먹다 남은 미지근한 콜라를 원하는 눈치였다. 내게 그것을 받아내자마자 길거리 아이들이 떼로 몰려왔다. 울고불고 싸웠다.

인도의 고아, 동아시아B국 선교사 자녀 유치원, 중남미 나카라과에서 학교 사역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 다국적 교사, 초문화(Multi-culture) 교육에 대한 한계와 갈등을 몸소 체험했다.

성장시기를 타문화권에서 보낸 주재원, 비즈니스, 선교사 자녀

들을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특히 선교사 자녀(Missional Kids: MK)는 한국인의 뿌리를 가진 국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많은 선교사의 간증을 듣다보면 특별한 울림을 주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자녀를 향한 고민과 애타림이다.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겪는다.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선교사들의 끝없는 순종과 헌신을 볼 때면 MK(선교사자녀)사역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싱글 사역자의 한계에 부딪혀 있던 즈음이었다. 선교사역을 활성화시키고, MK를 차세대 선교리더십으로 세우는 거룩한 자리에 초청되었다. 하나님은 MK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골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책상 앞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MK를 품게 되었다.

이동이 잦은 MK들이 더 이상 부모님의 신발이 아닌 하나님의 신발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보석같이 빛이 난다.

나는 MK가 정말 좋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마음으로 MK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들과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김정혜 선교사는

예배하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십을 양육하고 배가사끼기를 꿈꾼다. 현재 MK(선교사자녀) 사역을 섬기고 있다.

MK사역문의 070-4464-8115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눅 6:1~11

‘어떻게’ 보다는 ‘왜’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교적 위선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위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사소하게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신앙규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규칙에 대해 집착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종교적 위선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종교적 위선에 갇힌 바리새인들과 진리를 행하고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절기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연구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연구했지 왜 지켜야 하는지는 질문하거나 연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는 ‘왜’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규칙들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위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몇 가지 규칙에 집착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협한 신앙

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주의’

우리에게도 21세기 ‘바리새인주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미수냐’라는 규정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서른아홉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극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켰습니다.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거룩한 바리새인지 아닌지를 평가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약시대 역사가 요셉푸스에 의하면 주전 167년경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안티오푸스 에피파네스 황제의 군인들이 안식일을 이용해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1~2절).

제자들이 배가 고파 길을 지나다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보면 배가 고프은 사람들이 추수 전후 밀 이삭을 먹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신 밀 이삭을 먹을 때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포도밭에서 포도를 먹는 것은 허용하지만 바구니는 들고 가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낫을 대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어하신 것입니다. 포도밭에 바구니를 들고 가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타작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적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의 무서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다윗이 행한 일을 예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의 위험을 피해 도망갔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얻어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된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히멜렉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정은 사람을 죽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살리는 규정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억누르고 무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규정도 뛰어 넘으십니다. 어떤 종교적 규칙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대부분 종교분쟁입니다. 이념분쟁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들은 잘못된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종교적 위선이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버려도 되는 전통, 지키지 않아도 되는 종교적 규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존중하고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

두 번째 사건이 또 다른 안식일이 일어났습

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지, 고소할 트집이 없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킵니다. 회당가운데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소할 일을 찾기 위해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9절).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자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신 후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확대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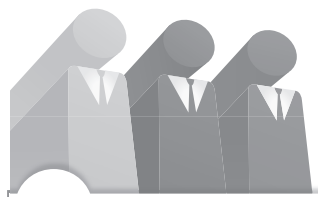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이 펴지는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놀라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 어떻게 처리할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종교적 규칙을 어긴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종교생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상해지는 이유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만들어놓고 그 규칙을 잘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애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칙을 어겼다는 것에 집착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13면에 계속〉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1. 교회만족도와 신앙생활
2. 성도들의 신앙의식

구원확신 높고 신앙실천 의지 강해, 사회적 윤리문제는 더 보수적

온누리교회는 역시 건강한 교회다. 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까지 실시한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식이 매우 건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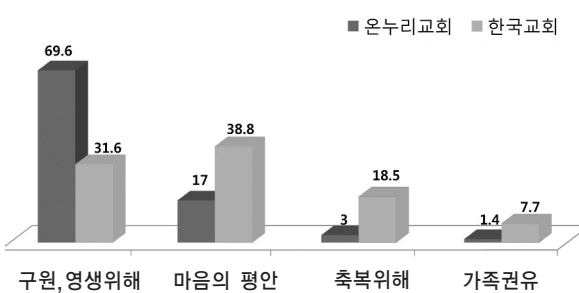
한국교회와 비교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자녀 신앙교육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에서도 소명의식이 높고, 높은 비율의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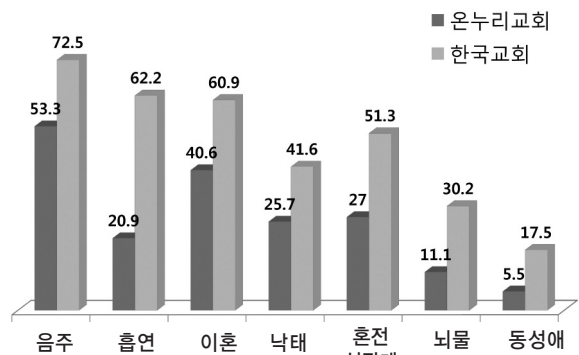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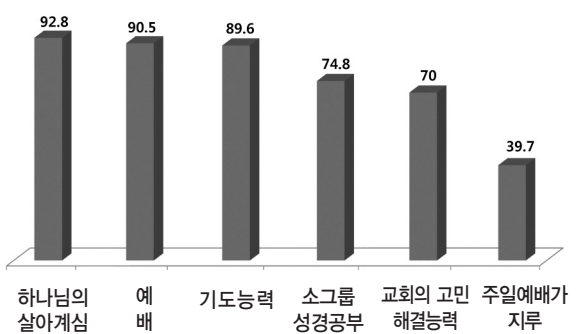
신앙생활 이유



윤리문제 인식



신앙인식(중고등부)



구원과 영생을 위해(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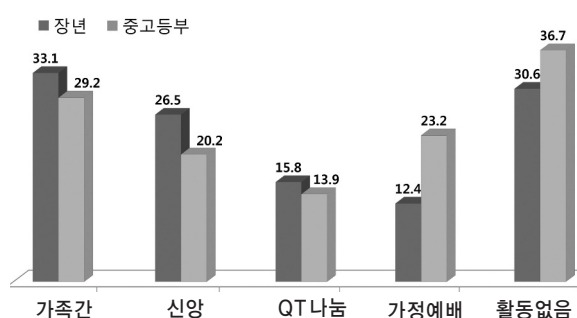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69.6%) 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17%)', '축복 위해(3%)' 등의 순이었다. 한국교회 조사결과(31.6%) 보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높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38.8%)' 보다는 낮았다.

음주 53.3%, 흡연 20.9%, 이혼 40.6%, 인공유산(낙태) 25.7%, 혼전 성관계 27%, 뇌물 제공 11.1%, 동성애 5.5%의 응답자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와 '해도 무방하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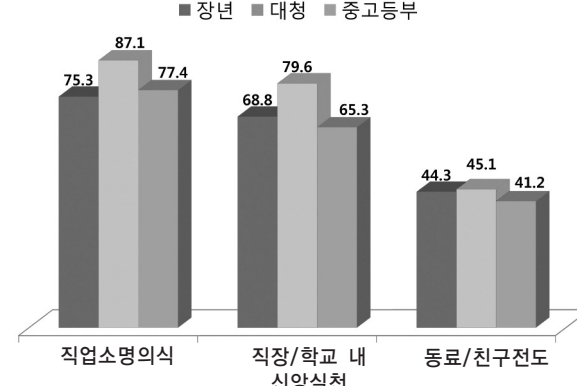
한목협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윤리적·신앙적 견해는 보수적인 편이다.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는 항목은 흡연이었다. 한목협 조사에서는 62.2%가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온누리교회는 20.9%에 그쳤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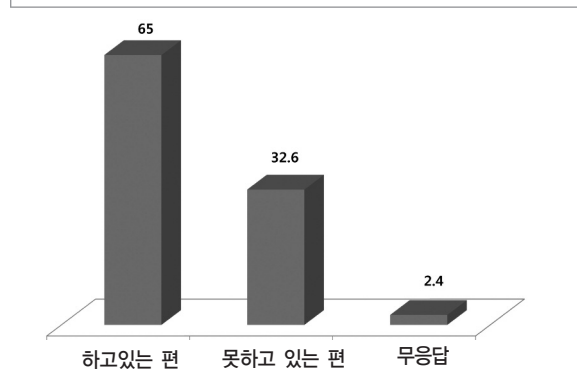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 신앙교육(유자녀, 기혼자)



가정, 일터, 자녀에게 신앙실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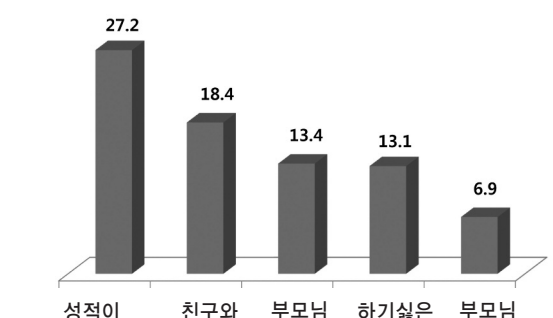
지난 1주일 동안 가정에서 이루어진 신앙 교류에 대해 질문했다. 가족간 기도(33.1%)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6%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앙 나눔/상담(26.5%)', 'QT 나눔(15.8%)', '가정예배(12.4%)' 등이 뒤를 이었다.

일터에서 삶에 대해서는 75.3% 성도가 '나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는다' 라고 응답했다. 또한 68.8% 성도가 직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44.3%는 일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일터에서 소명의식과 신앙실천 노력 의지가 비교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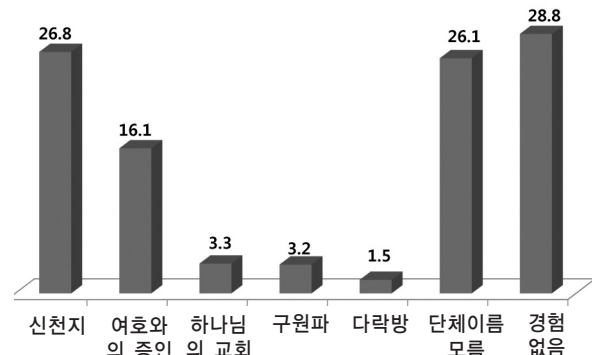
자녀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65% 성도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다. '별로 하지 못하고 있다(29.1%)', '전혀 못하고 있다(3.5%)' 순이었다.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2배가량 많았다.

대학청년부/중고등부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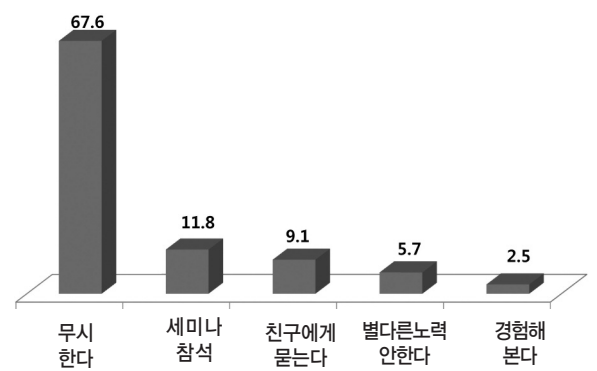
가장 큰 스트레스(중고등부)



이단사이비 접촉경험(대학생)



이단사이비 대처요령(대학생)



이단문제 · 성적과 진로 고민

55.7% 대학생들이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단·사이비의 접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단별로는 신천지가 2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접근했지만 잘 모르겠다(26.1%)', '여호와 의 증인(16.1%)', '하나님의 교회(3.3%)', '구원파(3.2%)', '다락방(1.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단 사이비가 접근한 적이 없다(28.8%)' 수준이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67.6%의 응답자가 '무시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이단·사이비 예방 특강에 참석한다(11.8%)',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본다(9.1%)', '직접 경험해 본다(인터넷 사이트, 집회, 성경공부 등) 2.5%' 순이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떨어졌을 때(27.2%)'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학교 성적 및 공부 관련 비중이 40.2%로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선교와 예배가 강한 교회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다. 음주, 흡연, 이혼, 낙태, 혼전성관계, 뇌물제공, 동성애 등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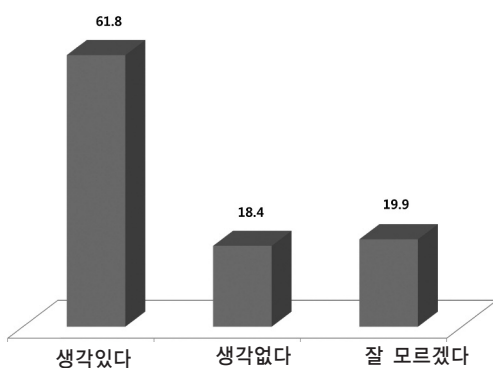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목회강점으로선 선교와 예배를 꼽았다. 교회 신뢰도도 높다. 한국교회에 방향성 제시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향후 사회선교 분야를 보완

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식,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대 학생년부/차세대 고민, 교역자들의 신앙의식, 온누리교회 이미지, 온누리교회의 역할에 대한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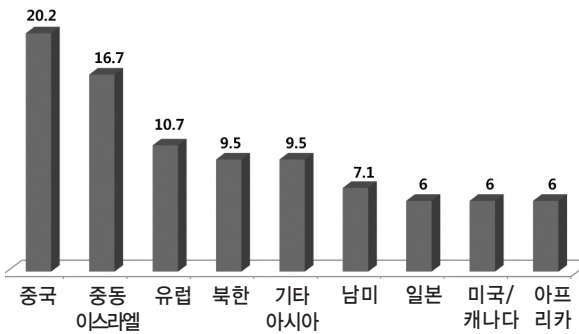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역자들의 신앙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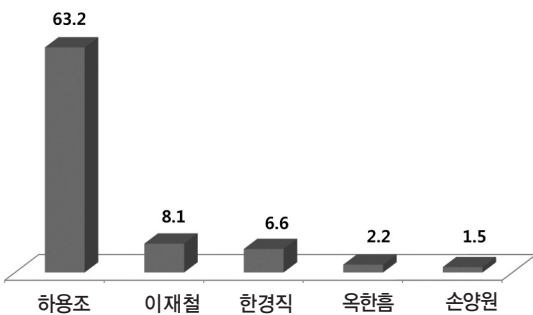
선교사로의 헌신



개척하고 싶은 지역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61.8% 선교사 헌신 생각

온누리교회 교역자 61.8%는 해외선교사로 헌신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잘 모르겠다(19.9%), 생각없다(18.4%)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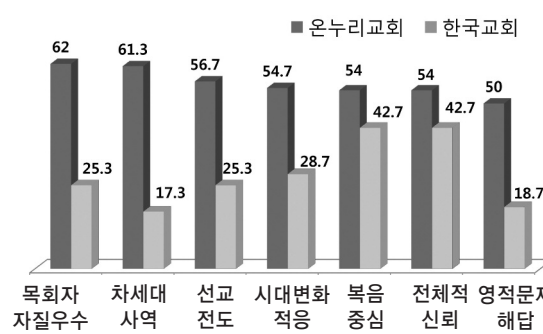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지역은 중국(20.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동(16.7%), 유럽(10.7%), 북한(9.5%), (일본 제외)아시아(9.5%), 남미(7.1%), 일본(6%), 미주(6%), 아프리카(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는 단연 하용조 목사(63.2%)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이재철(8.1%), 한경직(6.6%), 옥한흠(2.2%), 손양원(1.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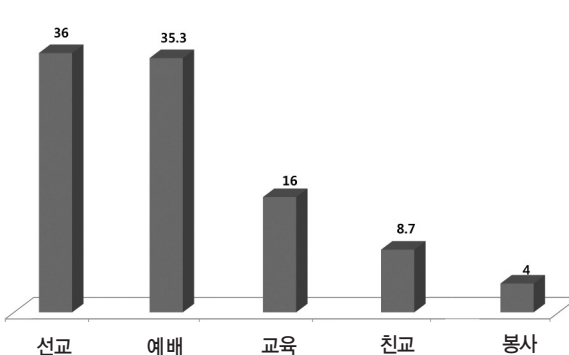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으라는 질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생각이 달랐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옥한흠, 한경직, 조용기, 김삼환, 오정현, 이동원 등의 순으로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았다.

온누리교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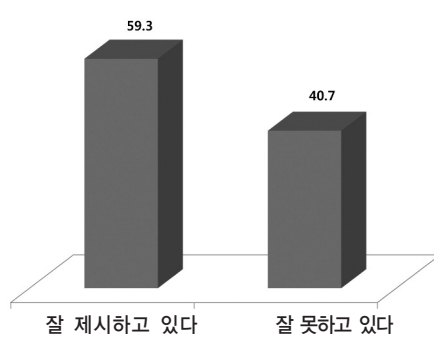
교회 신뢰도(긍정률)



목회 분야 강점



교회의 방향성 제시



'선교와 예배' 최고의 목회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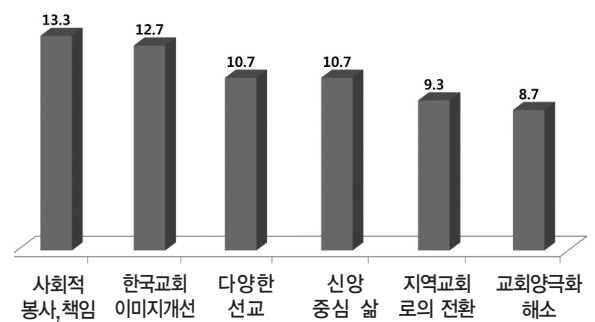
모든 조사항목에서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차세대 사역과 목회자 자질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도 56.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전체적인 신뢰도 역시 온누리교회 54%, 한국교회 42.7%로 온누리교회가 더 높았다.

온누리교회 목회강점은 '선교(36%)'와 '예배(35.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16%)', '친교(8.7%)', '봉사(4%)' 등의 순이었다. 외부에서도 온누리교회는 선교와 예배가 좋은 교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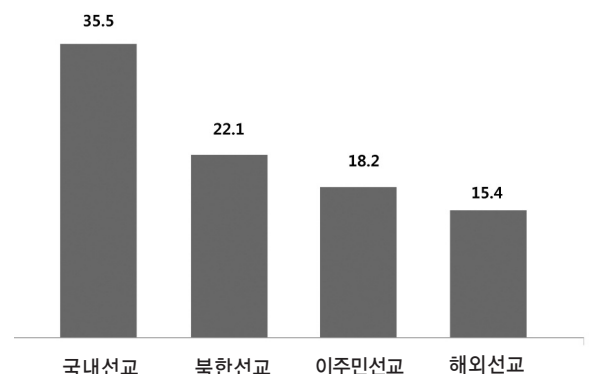
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적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9.3%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잘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40.7%나 되었다.

온누리교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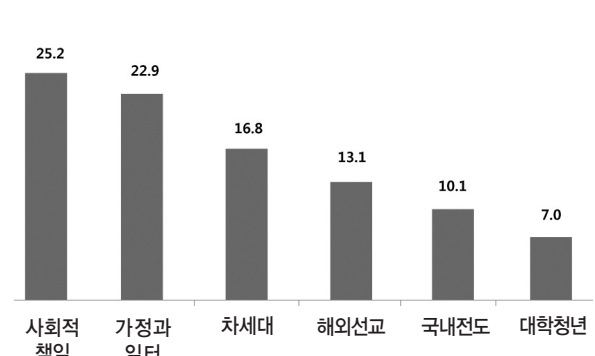
한국교회 발전위해 해야 할 역할



향후 보완해야 할 선교분야



향후 보완해야 할 사역분야



사회선교 분야 활성화시켜야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 외부에서도 온누리교회가 보완해야 할 사역분야로 '사회선교'를 꼽았다. '사회적 봉사와 책임',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 '다양한 선교활동', '신앙 중심의 삶' 등을 통해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온누리교회가 향후 보완해야 할 선교분야로는 35.5% 성도가 '국내선교'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선교(22.1%)', '이주민 선교(18.2%)', '해외 선교(15.4%)' 등의 순이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사역 분야는 응답자 25.2%가 '사회적 책임(구제와 봉사)'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22.9%)', '어린이/중고등부(차세대)사역(16.8%)', '해외 선교(13.1%)', '국내 전도(10.1%)', '대학/청년 사역(7%)' 등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

예배, 양육, 전도 열기 뜨겁다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주는 교회 ...창립 6주년



지난 2월 26일 열린 Revival 수요저녁예배에서 강동 온누리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벌써 6년. 지난 23일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2008년 2월 24일 건대 온누리교회로 시작했다. 2010년 강동구 천호3동으로 이전하여 이름을 강동 온누리교회로 바꾸었다. 1400명 출석인원 중 성인 600명, 청년과 차세대가 각 400명이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친밀함이 느껴지는 교회다. 또 젊다.

최원준 담당목사는 “강동 온누리교회는

강동지역에 세워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다. 섬김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했다.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Revival worship’ 예배를 매주 수요일 저녁에 드린다. 더 뜨겁고 역동적인 예배를 위해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예배팀과 부흥한국, 어노인팅 팀을 초청하였다. 3월에는 교회를 주제로 예배를 드린다.

양육에 대한 목마름도 간절하다. QT세미나와 OBC 로마서 강의를 90여 명의 성도가 수료하고 신청했다. 전도 열정도 뜨겁다. 매주 로데오거리 한복판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의 예배와 양육, 전도 어느 것 하나 미지근하지 않다. 뜨겁고 간절하다.

/ 박원새 기자 leaf@onnuri.org

〈3월 목회일정〉

수요오전예배 '사순절_Lent'
(오전10시30분)

수요저녁 Revival예배(오후7시30분)

3/5 The Church

3/12 사도행전적 교회1 '말씀과 성령'

3/19 사도행전적 교회2 '선교문화 평신도'

3/26 Missional Church

일대일 양육자반(3/11~6/24)

화 저녁7시30분/성경원 목사/화평홀

일대일 지도자 재교육(3/9~30)

토 오전7시30분/이태희 목사/두란노홀

OBC 로마서(3/2~4/20)

주일 오후2시/두란노홀

온누리 예배학교(3/15~4/12)

토 오후4시/김영진.정장철 목사/두란노홀

금홀사역

천호3동 독거노인 반찬봉사 사역
복지관(고아원)방문(3/16)

프라미스 수련회 'overflowing'
(3/14~16)

Acts29 비전빌리지 / 강사_이문식 목사 외



목회칼럼
최원준 목사

만 2년된 캠퍼스 담당목사의 소회(所懷)

3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저에게 뜻 깊은 날입니다. 강동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섬기게 된 지 만 2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3월 4일, 전임자였던 리준석 목사님 뒤를 이어 강동 온누리를 섬기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캠퍼스 담당목사로 섬기며 목회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89년 신대원에 입학한 때부터 따지자면 저는 올해로 25번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전도사,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했으며, 두란노에서 월간 잡지 편집장으로 지내기도 했지만,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당목사가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첫째 아이가 부모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듯 지난 2년 동안 강동 온누리에서 목회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담당목사는 한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더군요. 물론 부목사와 파트 교역자들과 일을 분담하고 일임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담당목사에게 있습니다. 서빙고와 양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맡은 역할만 잘 하면 됐습니다. 각 지역 본부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담당목사는 목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부교역자들과 같이 기획하고, 장로님이나 기타 리더십과 더불어 논의하며 동역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관여해야 할 때도 있

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주일 출석 인원이 약 1400명에 이르는 중대형 교회지만, 서빙고나 양재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중소형 규모의 지역교회 분위기(친밀함, 세세함 등)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시절 다양한 목회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담당목사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관여되(즉 책임의식을 가지지만) 각 지역 담당자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논의해오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만의 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나만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결국 리더란 전문성, 넓게 볼 줄 아는 안목,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 주는 포용력이 요청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힘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에 우리의 비전(Acts 29의 비전)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모든 목회에 우리의 비전이 스며들어 있어야 하며, 목회 계획과 평가도 그 비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이 리더십의 기본이 저에게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묵상하고 있

습니다.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ACTS 29 비전을 강동 땅에서 어떻게 이뤄내야 할지를 말입니다.

셋째, 성령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권위입니다. 저는 신약학을 전공했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새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진리를 목회할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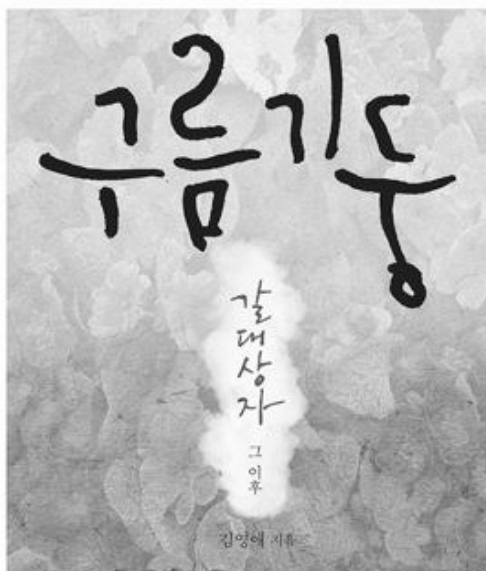
목회자는 성도들이 인정하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설교에 영적 권세가 있기를, 저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성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다정한 역사도 사모합니다. 공명심이나 교회성장에 대한 야욕을 채우기 위해 행해지는 과시적인 치유 역사를 바라는 인내겠지만, 성령의 자유하신 역사를 기대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배우는 중입니다. 배움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고민과 좌절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담당목사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49세의 저를 사랑하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저의 목회는 행복할 것입니다.



책 속의 은혜 _ 김영애 권사 이야기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0만 독자를 울린 <갈대상자>
이제 '구름기둥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권사는 사랑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권사가 아니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경험하는 신도는 있습니다.



갈대상자 두 번째 이야기 <구름기둥>

“격려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내려진 밧줄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7일 서빙고 홍보관 <구름기둥>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30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갈대상자>의 저자 김영애 권사가 10년 만에 두번째 이야기를 펴냈다.

<구름기둥>에는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간증이 담겨있다.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친구들의 위로, 중보자들의 기도가 그녀의 구름기둥이었다고 고백한다.

김영애 권사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어느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내 눈시울이 붉어

졌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여학생이 선교현장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여학생은 지금 탈북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고 한다. ‘공부해서 남주자’는 한동대학교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지금 풍량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이다. 이땅의 청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전했다.

/ 박임새 기자 leaf@onnuri.org



▶김영애 권사는

김영애 권사는 이화여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과학자 김영길과 결혼 후 도미,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했다. 미국에서 남편 김영길과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삶을 헌신했다.

남편 김영길 장로가 한동대학교 총장이 된 이후 19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남편을 내조했다.

저서로는 30만 독자의 가슴을 울린 <갈대상자>가 있다. 이 책은 2004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저자 사인회 일정

3월 9일 양재 1,2,3부 예배 이후
3월 15일 강남 교보문고 오후 2시
3월 16일 서빙고 1,2부 예배 이후

▶서평_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작열하는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한다. 김영애 권사 부부는 19년 동안 한동대학교를 섬기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재정적 어려움, 멸시, 오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다. 김영애 권사부부가 경험한 고난과 은혜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1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2부 곳곳에 구름기둥을 3부 구름기둥을 따라

배우자 찾는 그녀들에게 바치는 ‘연애지침서’



배우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연애는 하지 못하는 자매들이 많다.

예쁘고 참한 자매들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우자 기도만이

있다.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 하는 자매들을 위로하고 지혜롭게 연애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싱글의 이유부터 자기 검토의 필요성, 과거의 상처를 회복해야 할 것을 언급하며 결혼을 위해 내면이 준비되어야 할 것을 권면한다. 열쇠는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있다고

이 책은 기존 크리스천 연애지침서와 다르다. 마치 결혼에서 교회언니가 이성교제 상담해주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진다. 글이 굉장히 재미있고 따끔하리만큼 현실적이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쉬쉬했던 내용들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찬란하게 보내야 할 20대를 떠나 보냈다. 이제 30대. 어떻게 해야 하나. 숨어있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자. 내면의 아픔을 내려놓자.

형제들을 위한 저서 <고백하기 좋은 날>도 있다. 용기 없고 소심한 형제들을 위한 책이다. 준비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있다.

/ 박임새 기자 leaf@onnuri.org

결혼하고 싶으세요?

대청, iWe 참가자 모집

싱글이 편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본 적도 없는 당신이 그림다.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은 결혼은 “자아가 성숙하는 과정이자 자기애를 버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근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4월 5일부터 크리스천 미혼남녀의 결혼 돕는 iWe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나(I)를 우리(WE)로 바꾸어 준다는 ‘iWe’는 둘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사역은 2012년부터 진행되었다.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다. 매번 커플 성공률이 50%를 육박한다. 건강한 방향으로 이성관과 결혼관이 변화되었다는 고백도 줄을 잇는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멘토들이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결혼을 꿈꾸는 온누리교회에 등록 30세~40세의 형제, 28~36세의 자매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형제자매 각각 10명을 모집한다(이메일로 접수). 기한은 3월 15일까지.

문의: iweonnuri4u@gmail.com

010-5135-7432 이미지정 팀장

답인가?

여기, 배우자를 찾는 그녀들을 위한 책이 있다. 현실적 연애 강의로 유명해진 김지윤 강사(좋은연애연구소 소장)의 저서다. 저자는 IVF간사로 섬기면서 크리스천 자매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실적 연애지침서를 펴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애에 대하여, 인식 전환과 실천의 필요성, 넉크리스천과의 이성교제, 독신을 선택한 자매를 위한 격려 등으로 이루어져

▶김지윤_ 저자는 ‘좋은연애연구소USTORY’ 소장이다. TVN 스타특강show, 김지윤의 달콤한 19를 진행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소리> 및 <대학가> 필진으로 활동했다. 전 IVF(한국기독교학생회)간사로도 섬겼다. 여러 기독교 단체와 매체에서 크리스천 싱글 여성을 위한 강사를 하고 있다.

온누리 호스피스

마지막 가는 길, 손 잡아주는 이 있다면...

죽음 앞둔 환우들의 따스한 안식처



다. 그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고 한다. 그가 호스피스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때에 희망을 주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봉사 동참하세요

홀로 외로이 투병하는 환우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면 ‘온누리 호스피스학교’의 문을 두드리자.

호스피스학교의 최민철 장로는 호스피스학교는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도록 돕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돕는 귀한 사역이라고 소개한다. 말기 환우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온누리 호스피스학교가 3월 26일부터 시작된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모집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봉사자

대상: 20세 이상 성도

일시: 3월 26일~5월 21일

장소: 서빙고 비전홀

회비: 7만 원(교재비 별도)

문의: 진중광 총무(010-2573-2593), 강경옥(010-3412-7966)

삼성병원 선교 봉사자

화~금요일, 오전 10시~12시30분

문의: 황인경 팀장(010-8367-8835 양재)

이영미 총무(010-8944-0634 서빙고)

“고마워요. 권사님이 우리 언니 같아요”

죽음을 앞둔 환우가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전한 말이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환우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챙기고, 홀로 가는 죽음의 길 앞에 서있는 환우들의 손을 잡아준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알려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환우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곁에 있어만 줘도 힘이 난데요

“환우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맙다면서 안아주세요. 그 품에 안기는 것

이 저의 기쁨이자 보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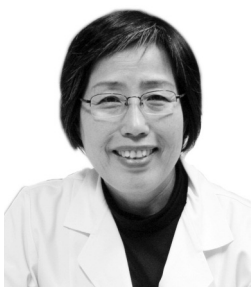
호스피스 5년차 봉사자 진중광 집사(신용산공동체)의 고백이다. 그는 요셉 술람 목사의 강의를 들던 중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듣고 호스피스 봉사자로 자원했다. 지금까지 40여 명의 환우들을 돌봤다.

“71세 폐암말기 전도사님을 돌본 적이 있어요. 네 명의 봉사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청소도 했어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3년차 봉사자인 민경애 권사(양재공동체)는 지난 2월 소천한 한 자매에게 ‘권사님은 언니같다’는 문자를 받았

기고

환우를 가족처럼 돌보는 ‘온누리 호스피스’



김정숙 목사
(온누리 호스피스 담당)

“저의 어머니 장례식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실망하시지 않도록 아버지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2014.2.8 오후 5시 2분 딸 00 올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살고 싶어 병원을 찾아올 때마다 그 큰 눈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던 눈물도 이제 볼 수 없고,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선하게 기억되는 그의 모습과 말 한마디가 남는다.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아직 죽기는 젊잖아요. 믿음 가졌으니 이제 제대로 한 번 살아 보고 싶어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대화를 나누는 환자와의 만남은 쉽지 않다. 활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00자매님은 호스피스 봉사자와 만나며 아픈 몸은 쇠잔해 갔지만 영은 더욱 빛났다. 믿지 않는 자매였다. 병원 선교팀 봉사자를 통해 알게 된 말기 암환자였다. 2002년 10월 29일경 발병해 10여 년 동안 반복된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참았다.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9월, 그 자매는 척추 종양이 허리와 다리 골반까지 전이되어 마지막 수술을 했다.

딸의 문자에 믿음의 언어가 들어 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말이지만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나로서는 이 말처럼 귀한 것이 없다. 딸도 암 병상에서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홀로 계신 아버지께 효도하겠다고 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10년이 넘도록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다. 환자도 완치되기 바라지만 점점 더 나빠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알기에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다.

그 자매는 천국가기 바로 전 만남에서 “이번에는 퇴원하면 집에 가기 싫어요”라고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던 변경순 권사가 “그럼 저희 집으로 가요. 빈 방 있어요. 그게 낫겠어요”라고 했다. 봉사자의 말 한마디가 자매의 마음을 위로했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갔다.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왔다.

“여기도 편치 않아요. 한번 찾아와 주세요”

웃음 반 울음 반 섞인 자매의 전화를 받고 며칠이 지나 자매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자매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목사님 이곳은 정말 좋네요. 혼자 남은 딸 잘 돌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음성 이 들리는 것 같다.

삼성서울병원선교팀과 온누리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환우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다. 혹시 말기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호스피스학교에 요청해 달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돕는다. 호스피스 봉사자가 되어 환우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자활 돕는 카페

“착한 가게에서 착하게 드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 (마 25:40)이라고 하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사랑과 돌봄,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웃을 의미한다.

장애인들이 돕는 카페가 있어 화제다.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카페에 전시하고 판매하면서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장애인들의 그린 그림으로 카페를 디자인하고, 그림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자활에 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카페는 찾기 힘들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카페들을 소개한다. 압구정 ‘핑크커피’와 연희동 ‘카페 티이(T.E.)’다. 이곳에 가면 온누리복지재단 소속 산하기관 변동코이노니아 예술평업장에서 제작한 카드와 그림을 관람할 수 있다.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온누리복지재단 돕는 커피숍

“무한도전에서 봤던 그 카페!”

‘핑크커피’는 ‘무한도전 커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2월 무한도전 뉴욕편에서 멤버들이 핑크커피에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입소문이 났다. 당시 방송인 노홍철이 이곳에서 ‘소이라떼’를 주문했는데 그 영향으로 소이라떼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다.

강남, 명동 등 5개의 핑크커피 매장 중 갤러리를 콘셉트로 예술평업장 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압구정점뿐이다. 이곳에서는 예술평업장(예수님의 손길) 장애인들을 초

대해 파티를 열어주는 등 가슴 따뜻한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카페에는 18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구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그림 아래에 가격이 붙어있다. 카페 2층에는 미팅룸이 있어 소그룹 교제가 가능하다 (최대인원 10명).

핑크커피는 ‘공정무역, 유기농, 그늘 재배’한 커피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 핑크커피(Think Coffee) www.thinkcoffee.kr

추천메뉴: 스페셜라떼, 핑크커피, 피자 영업시간: 오전 7시~오후 11시
주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0-16(3호선 압구정역) 문의: 02-546-6860

■ 변동코이노니아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변동코이노니아는 지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을 목표로 각종 의류를 제조하는 봉제작업장이다. ‘코이노니아’는 나눔, 친교,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다. 현재 코이노니아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직접생산시설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정과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인 ‘더 착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연희동 숨은 브런치 카페”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학교 북문에 인접한 카페 티이는 일반주택을 개조한 카페다. 카페 내부를 예술평업장 장애인들의 그림으로 디자인해 아틀리에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 1층과 2층에 위치한 테이블은 모두 각기 다른 스타일로 배치되어 있다.

카페 1층에는 예술평업장의 그림카드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핸드폰 케이스, 향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카운터에는 예술평업장을 위한 후원함

이 마련되어 있다. 2층에는 일반 테이블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좌식 테이블, 룸 등이 있고, 야외 테라스가 있다.

동네 주민들과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숨은 맛집으로 유명하다. 재미있는 것은 ‘스페셜 티이 클래식 피자’를 주문하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된다. 수익금은 착한 일에 사용된다. 카페 티이는 착한 가게, 착한 소비에 앞장서고 있다.

2. 카페 티이(T.E.)

추천메뉴: 스페셜 티이 클래식 피자, 까르보나라 크림파스타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1시(일요일 휴무)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9-3 / 문의: 02-335-7903

■ 예술평업장은?

성인지적장애인 디자인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예술평업장은 20여 명의 지적장애인 화가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 그들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지적장애인들의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한 명의 작가로서 필요한 그림을 스스로 그리며 자긍심을 가진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다. 예술평업장은 1999년 9월 14일로 ‘예수님의 손길’, ‘예술가의 손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브랜드네임을 사용했다. 후원문의: 02-985-3609



| 2013년 양육현황 분석 |

참여 및 수료인원 증가세 뚜렷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성장이 놀랍다. 양적성장은 물론 스쿨에 참여 및 수료한 성도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양육본부에서 발표한 2013 양육현황 비교 분석표에 따르면 스쿨개설수, 과목수강신청 및 수료율, 캠퍼스 참여비율 등에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2년 456개였던 스쿨 개설수가 2013년에는 648개로 늘었다. 192개 반이 증가했다.

서빙고와 양재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도 활발하게 양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양육본부는 2013년 양육체계 변

화를 시도했다.

수많은 성경공부 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눴다. 사역팀 중심 양육에서 공동체중심으로 양육 패러다임을 바꿨다. 목양과 양육을 동시에 시도하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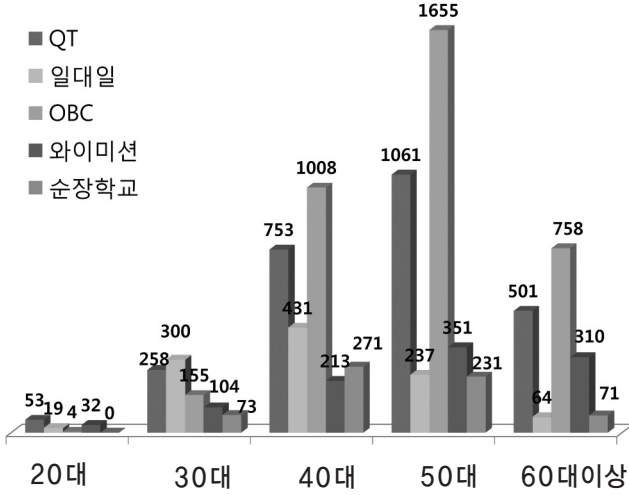
2013 양육현황 비교분석은 변화된 양육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필수과목의 두드러진 성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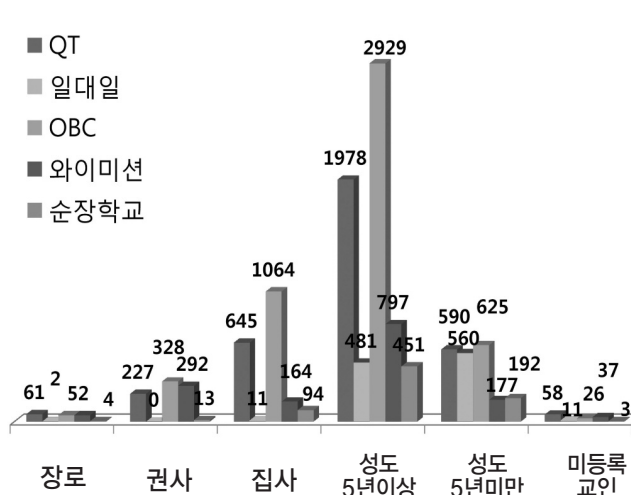
필수과목(QT,일대일,OBC,와이미션,순장학교)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2년 대비 183개 반이 증가했다. QT와 OBC의 약진도 눈에 띈다. QT와 OBC과정이 각각 74개반, 135개반 증가했다.

수료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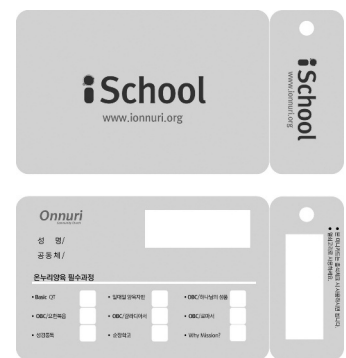
2012년에 비해 수료율이 44% 상승했다. 배움에 임하는 성도들의 열심을 볼 수 있다.

참여하는 성도 비율



5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수료인원의 70%를 차지한다 (50대 40%, 40대 30%). 직분별로는 5년 이상 성도가 56%, 5년 미만 성도가 18%, 집사 16.6%, 권사 7.2%, 장로 1.4% 순이었다.

아이스쿨 카드 발급



아이스쿨 카드가 새롭게 제작됐다. 자신의 수강내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카드뒷면에 필수과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강완료과목을 직접 체크할 수 있다. 수강내역은 아이스쿨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발급 :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온누리교회 사역 소개 3-OBC

배움이 즐겁다! 성경공부클럽 ‘OBC’

2013년 온누리교회는 양육체계를 정비했다. 공동체 중심 목양과 양육을 시도했다. 각종 스쿨들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눴다. 이때 성경공부모임 OBC가 신설됐다.

OBC는 Onnuri Bible Club의 약자다.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라는 뜻이다. 각양각색이던 성경공부 과목들을 OBC과정으로 체계화시켰다.

OBC는 BEE Korea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4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양육 프로그램

의 필수과정이다. 일대일 동반자반을 수료한 성도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OBC는 66개의 말씀클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꿈꾼다. 성경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평신

도들이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문의: 02-3215-3266

/ 정현주 기자

OBC 세미나 개강

캠퍼스	요일	과목	시간	강사
서빙고	3월4일(8주)	요한복음	10:00~12:30(화)	손정훈 목사
	3월4일(8주)	하나님의 성품	19:30~22:00(화)	서재범 목사
	3월6일(8주)	갈라디아서	10:00~12:30(목)	김형철 목사
	3월6일(8주)	갈라디아서	19:30~22:00(목)	최성석 목사
양재	3월11일(8주)	갈라디아서	10:00~12:30(화)	김요성 목사
	3월11일(10주)	요한복음	19:30~22:00(화)	이정환 목사
	3월13일(8주)	로마서	10:00~12:30(목)	김상수 목사
	3월13일(9주)	하나님의 성품	19:30~22:00(목)	김현실 목사

문의: 서빙고 화요반 010-8627-2098 목요반 010-5249-9024 / 양재 02-570-7557

강의 안내

훈련내용	강의 목적 및 설명	수료기준
갈라디아서	1.하나님께서 복음의 변호자로 준비시킨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공부한다. 2.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복음을 역사적, 신학적 논증을 통해 배운다.	출석 40% 예습 30% 과제 20% 시험 10% *결석 1회까지만 허용
로마서	1.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여해 주는 교훈과 원리를 살펴본다. 2.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새로운 격려와 도전을 받는다.	
요한복음	1.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 성품과 사역을 공부한다. 2.적용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르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성품	1.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성경을 통해 연구한다. 2.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한다.	출석 40% 예습 30% 과제 30% *결석 1회까지만 허용

고령화, 교회에서 대안을 찾자

시니어 선교가 뜬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유례없이 빠르다. 원인은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달이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한다.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았다. 부양문제, 노인우울 및 자살, 황혼이혼 및 육아 등 인생의 황금기가 눈물로 얼룩지고 있다. 인구고령화 문제 교회에서 대안을 찾아보자.

이제는 시니어선교 시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은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직장에서 은퇴, 부모역할 은퇴, 사회생활 은퇴가 노인문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결책은 역할부여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역할부여 측면에서 CGNTV가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선교캠페인'이 무척 반갑다. 시니어선교캠페인은 인생의 후반부를 선교



CGNTV가 시니어선교 캠페인을 시작했다.

에 헌신하지는 운동이다.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인들에게 오아시스가 아닐 수 없다.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시니어세대는 귀중한 선교자원으로 환영받는다. 젊은 선교사와 달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긴 시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쌓은 전문 기술과 경력도 매력적이다. 경험이라는 무기에 전문적 선교훈련이 더해지면 맞춤형선교사 탄생을 기대해도 좋다.

CGNTV가 한국교회와 손잡고 시니어선

교사 훈련을 시작했다. 전문가 초청 대담을 열고 시니어 선교 중요성도 논의했다. 시니어선교사 선발부터 선교사가 되기까지 여정을 '리얼다큐'로 방영한다고 한다. 벌써 그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문의: 02-3275-9445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쁨 · 위안 · 즐거움 주는 오케스트라

온누리드림챔버, 국내외 연주회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가 지난 2월 13일(목) 오후 5시 삼성의료원이 주최한 자선음악회에 초청됐다.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는 환우들과 가족, 병원직원들을 위한 밝은 성가곡과 따뜻한 선율의 클래식을 연주했다. 솔리스트와 앙상블, 오케스트라에 이르기까지 주옥같은 연주는 관람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 앙코르 곡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로 장식했다. 삼성의료원 한 관계자는 "환우들

에게 기쁨을, 가족들에게 위안을,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준 음악회였다"고 말했다.

하나님 사랑 전한 팜 아웃리치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팜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의 첫 아웃리치였다. 팜 온누리교회와 협력해 여러 지역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팜 장애인협회 '구마마미'와 함께 찬양콘서트

를 열기도 하고, 양로원을 방문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터치 콘서트'도 선보였다. 29일에는 마이크로네시아를 중앙홀에서, 30일에는 팜 프리미어아울렛에서 'With God's Dream'을 주제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특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아리랑'을 연주할 때 현지인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지은 기자

헌금할 때 꼭! 인적사항 쓰자!

헌금할 때는 반드시 헌금봉투에 인적사항을 기입하자. 헌금만 내는 경우 교회에 연말정산 영수증을 요청할 때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헌금할 때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입하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이다. 온라인 헌금도 마찬가지다. 이름,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자.

문의 02-3215-3202

/ 조은실 기자

이만열 교수 한국기독교 역사강좌

오는 17일부터 10주간, 서빙고 경찬홀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가편찬위원장)가 한국기독교 역사강좌를 개최한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강좌는 오는 17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진행된다.

천주교의 전래와 박해, 개신교의

수용과 기원, 교단의 성립과 발전, 3.1운동과 기독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한국기독교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참석할 수 있다. 등록비는 무료, 선착순 입장.

문의 02-2226-0850

/ 조은실 기자

서부아프리카에 더 멋진 세상을!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이 서부아프리카 사역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21일 세네갈에서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개소식이 있었다. 현지 정부 인사, 세네갈주재 한국대사, 참사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네갈 지부 첫 공식행사도 진행됐다. 본나바 마을의 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이었다. 총장과 교육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3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본나바 마을 어린이들은 학교 건물 없이 갈대로 지은 임시 막사에서 공부를 했었다.

기니비사우 우물공사 시작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블롬(Blom) 마을에서 우물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25미터를 굴착해 간수를 수동 펌프로 끌어 올려 주민들의 식수로 공급



하는 공사다. 오염된 물을 마시던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역 TV와 라디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다. 이번 공사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2천만 원을 익명으로 후원한 온누리교회 성도의 헌신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향후 진료소 설립, 학교 보수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일대일 명단

남양주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양육자반

▷ 이형석 목사반

■ 동반자반
강유석 이진택 김희국 한승만 김희숙 정인숙 권은한 양원경 김갑용 오호수 김민섭 박창국 김소희 유선진 김영금 홍미화 김영민 한승만 김용봉 오현정 김원미 최은영 김자란 김미숙 김정자 박연숙
여순민 홍정희 이남현 권대호 이병우 최재혁 이상경 김용배 이상우 김대원 이상은 최신실 이소미 전선아 이수연 김미숙 이용화 박은숙 이은아 유정윤 이종미 정양택 임성호 박기원 임은경 고정은 전성환 이진형
정명숙 박은진 정병훈 이진택 정인숙 최은영 정찬호 오이식 조미경 김혜경 조성익 박광식 조양문 김영호 조영균 임성택 조영호 이상진 최성욱 이명현 최종규 권중락 허수진 윤석란 홍성자 정인숙
강승호 안문례 구정호 유진영 김명선 윤정애 김민경 임종욱 김영민 임태영 김영호 장문기 류동원 박석홍 하진숙 손민숙 허희정



알기 쉬운 신학강좌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알기 쉬운 신학강좌’ 코너를 연재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글속에 풍성한 은혜를 담았습니다. / 편집자 주

연재순서 : **탐식과 잔치** | 잔치와 성만찬 | 금식

잔치와 성만찬

지난 주에 탐식은 죄이며, 성경은 탐식의 삶이 아니라 잔치의 삶을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봤다. 잔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공동체적 행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었다(출 19장).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다(출 20-23장). 언약 체결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다(출 24:11).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 친밀한 언약관계가 맺어진 것을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인 것이다.

예수님의 식탁교제

관계 회복을 기뻐하는 잔치의 삶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잘 나타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비난은 예수님께서 당시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신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리 및 죄인들과 나누신 식탁 교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죄인을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여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위였다. 예수님의 식탁교제는 모든 장벽과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지를 선포하는 ‘행동화된 비유’이며, 소외된 그들을 사회와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복귀시키는 일이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이러한 식탁교제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이나 가나안 포도주 기적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풍성한 잔치의 삶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성만찬은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뤄진 식탁 교제의 연속이요 극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것처럼(출 24장), 성만찬은 예수님의 삶과 피로 세운 새 언약 공동체(교회)의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성만찬이 유월절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성만찬이 출애굽 사건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뜻이다. 성찬식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피를 나누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곤고함을 아파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탐식은 전(全) 지구적인 문제다. 세계 인구 중 10억은 비만인 데 반해 10억은 굶주리고 있다. 한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정반대의 개탄스런 현실은 삶과 피를 나누 주신 예수님을 따라 나눔의 삶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성만찬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천국 잔치로 완성될 것이다. ‘메시아의 잔치’ 혹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 19:9)로 불리는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잔치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잔치에 대해 예언한 바 있다(사 25:6-8).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교제와 성만찬을 기념하고, 메시야가 베풀 잔치를 소망하며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은 자기만 배불리는 탐식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의 삶, 성만찬의 삶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불지여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약속하시며 우리를 풍성한 잔치의 삶으로 초대하신다.

❖지면관계상 각주는 생략합니다.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연재순서 : **허리띠** | 화장품 | 터번과 베일 | 신발과 신들매

허리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창3:7)

에덴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은 예기치 않은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나체인 상대를 보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긴 것이다.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범죄로 인해 생긴 죄의식의 첫 번째 반응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다. 부끄러움이 생기자 이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가장 부끄러운 부위를 임시변통으로 가렸다. 이때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만든 최초의 옷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치마였을까? 우리말 성경에 ‘치마’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하고라’로 되어 있다. 이는 ‘허리띠’를 가리킨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허리띠’로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다는 말인데, ‘허리띠’로는 부끄러운 부위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을 테니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런 허리띠는 아니었을 것이다.

‘허리띠’로 번역된 ‘하고라’는 원시인들이 허리에 두르는 간단한 천을 가리킨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걸치는 의상이 바로 ‘하고라’인데, ‘허리에 두른 간단한 천 조각’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하고라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의상이다. 처음에는 하고라만 걸치다가 점차 속옷, 겹옷 등으로 옷이 다양해지자 하고라는 허리둘레를 묶는 ‘허리띠’로 단순화되었다. 허리띠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거나 옷감으로 짜기도 했다. 가죽으로 된 허리띠는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대표 의상이기도 하다.

성서시대 속옷과 겹옷을 입은 상태에서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다’, 즉 허리띠로 조여주는 것은 여행이나 전투를 위한 준비 태세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했다. 출애굽 당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리에 띠를 띠 채로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신호가 떨어지면 곧바로 애굽을 출발할 만반의 태세를 취하라는 뜻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 유월절이니라”(출 12:11)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봄학기 강좌〉

일시: 4월 7일~6월 11일(매주 월, 수, 총 10회)
과목: 성서히브리어(월-오전), 구약심화과정(월-오후)
신약심화과정(월-저녁), 성서지리&고고학(수-오전),
성막성전절기(수-오후)
문의: 김주희 간사(010-4902-1022), www.openbiblekr



내가 만난 하나님
유형정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너는 기계유(杞溪翁)씨 자산공파(慈山公派) 13대손이다.” 기문을 중시하던 할아버지는 손자인 나에게 전통적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가정교육을 시켜셨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다. “밥상 앞에서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유교적인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삶의 목적과 의미도 묻지 않았다. 무덤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물론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가끔씩 성탄절에 교회와 성당을 갔었지만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 결혼 후에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가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 좋아 보이는 풍조를 따라 학창시절에는 더 나은 직장을 구하려고 공부했다. 결혼 후에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평범하고 나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안정된 직장을 찾았지만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려는 경쟁심에 밤을 지새웠다. 무

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는 내게서 멀어져갔다.

송두리째 바뀐 삶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면서 이따금 한번씩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아내의 말을 거부장죄 권위로 무시하며 지내던 중 결혼 10년차에 아내 소원 한 번 들어주자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선교단체의 수련회에 참석했다.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에 냉소적이던 나는 셋째 날 찬양을 하던 중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전기공학을 전공해 이론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던 모습과 유년 시절부터 몸에 밴 유교적 관습을 그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송두리째 뽑아내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삶을 변화시키셨다.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나를 향한 계획이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 이 지면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한권의 책이나 찬양’, ‘내가 만난 하나님’ 등을 주제로 간증을 보내주십시오. onnuriweekly@gmail.com





<3면에 이어>

주일강단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설교할 때마다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모자를 쓴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비둘기의 배설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칼빈주의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일화가 주는 시사점이 큼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지, 아니면 죽이든지 악한 일을 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왜라는 질문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종교적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일,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일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5절).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에 규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병이 38년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응급환자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규례를 깨뜨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신 이후 누워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보고 놀라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의도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성경에는 창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인간이 지켜야 될 안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태양은 뜨고 우주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안식일을 의식하고 그 날을 피해 병을 고쳤다면 권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잘못된 종교적 위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안식일에는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쉬라고 했을까요. 일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또 안식일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힘을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참된 주인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에 집착하면 종교적 규칙이 주인이 됩니다. 종교적 규칙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종교적 규칙에 갇히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적 위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묵상하다 ‘왜’ 행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얽매는 종교적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위선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4년 아이스쿨 강좌안내

<서빙고>

12기 치유사역자스쿨
일정 : 3월6일~4월24일(매주 목) 오후7시20분
장소 : 콘서트홀
회비 : 5만원(선교사3만5천원)
문의 : 010-7388-9900 또는 아이스쿨 등록

온누리 큐티스쿨 25기 오전반
일정: 3월9일~3월23일(매주 주일)
9시~10시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회비: 1만원(당일접수)
문의: 이완구 팀장 010-3199-2769
또는 아이스쿨 등록

18기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주간/저녁반)
단계 : 주간반 1~4단계 / 저녁반 1~2단계
일정 : 주간반-3월4일~6월17일(매주 화) 10시~오후3시
저녁반-3월5일~6월18일(매주 수) 오후7시30분~9시
장소: 콘서트홀 외 3곳
회비 : 7만원(하나 573-910008-84705)
문의: 팀장 이태열 010-8891-9780
주간반 010-3388-0676
저녁반 010-6384-3024

<양재>

성경일독학교
일정 : 3월7일~6월20일(매주 금) 오전10시10분~오후2시
장소 : 화평홀
문의 : 오정란 사역자 02-570-7457
김주혜 간사 02-570-7277

성경통독학교
일정 : 3월8일~5월24일(매주 토) 오전10시~12시
장소 : 화평홀
회비 : 3만원(당일접수 4만원)
문의 : 02-570-7433

일대일 양육자반 개강-황종연 목사반
개강 : 3월9일
시간 : 매 주일 오후2시
장소 : 강의동 201호

알림

평양노회 목사후보생고시 공고
일시: 3월 27일(목) 오후 1시
장소: 방주교회(586-9191)
서초구 방배2동 425-2

첫 응시자: 청원서, 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교인증명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당회장추천서, 세례교인증명서(교회에서 발급)
제 응시자(유효기간 3년): 청원서, 이력서 각 1부
3월 4일 오후 4시 서류마감, 방문접수
문의: 김경렬 간사(3215-3234)

2014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일시: 3월 6일(목) 오전 9시
장소: 양재 드림홀
자격: 신랑, 신부, 양가부모 중 한명이 온누리교회 교인(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이어야 함,

<부천>

온누리 큐티스쿨-이기원 목사반
일정 : 3월9일~3월30일(매주 주일) 오후4시~6시
장소 : 드림홀
문의 : 이근용 010-5230-1961

온누리 큐티스쿨-최범석 목사반
일정 : 3월8일~3월29일(매주 토) 오전7시~9시
장소 : 예꿈홀
문의 : 김두겸 010-3207-8767

일대일 양육자반-서현 목사반
일정 : 3월8일~6월28일(매주 토) 오전6시30분~8시30분
장소 : 꿈아이홀
문의 : 이재춘 010-9031-2909

<수원>

일대일 양육자반-신기섭 목사반
일정: 3월8일~6월7일(매주 토) 오전10시~12시
장소: 믿음홀
문의: 김명수 팀장 010-5227-2126
전정호 총무 010-9123-0311

<대전>

QT BASIC 세미나
일정 : 3월5일~3월26일(매주 수) 오후7시30분
장소 : 6층 분당
문의 : 042-825-3642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박태영 목사반
일정 : 3월9일~6월22일(매주 주일) 오후 4시
장소 : 302호
문의 : 042-825-3642

OBC 로마서-대전 중서
일정 : 3월9일~5월4일(매주 주일) 오후4시
장소 : 304호
문의 : 042-825-3642

OBC 로마서-대전 유성
일정 : 3월9일~5월4일(매주 주일) 오후6시30분
장소 : 302호
문의 : 042-825-3642

타교회 무관 신랑, 신부 혹은 양가부모
준비: 예약금 50만원 및 교인확인증명서
선정방법: 제비뽑기(오전 9시 이전 도착 한함)
문의: 서빙고 신석호 02-3215-3183
양재 강보라 02-570-7505

서빙고 새가족 오후 1시 과정 신설

장소: 서빙고 순행홀
일시: 3월 2일부터 3부 예배 마치고 시작
문의: 정은숙 팀장(010-7513-0713)

5분 전도 훈련생 모집

내용: 어디서든지 5분 정도의 시간에 전도하는 방법 훈련과정
일시: 3월 16일~5월 25일까지(11주 과정)
회비: 2만원
문의: 02-3215-3637